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2. 1. 25. (화) / 총 6매 (본문 4, 붙임 2)	
자료 제공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 김미경 실장 (051-797-4381, ondine@kmi.re.kr) - 성무석 전임행정원 (051-797-4384, seongms@kmi.re.kr)	
배포 부서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84)	
보도 일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 KMI 2022 해양수산 전망대회, 해양수산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응과 재도약을 말하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 탄소중립 등 팬데믹 이후를 대비 해야
- 국민경제에서 해양수산업의 비중과 국민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2022년 1월 19일 (수) 「2022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본 행사에서는 개회식, ‘중장기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에 대한 3개의 발표,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진행됐다.

김종덕 KMI 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국제 무역환경 변화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극복 후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해양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담보하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혁신적인 대응과 발전방안, 해양수산인의 합심된 역량으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장정인 KMI 경제동향분석 실장은 첫 번째 발표에서 “2022년 해양수산업은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어 실질부가가치 기준 약 3.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이며, 우리나라 GDP의 직접기여도는 지난해에 이어 약 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했고, 주요 과제로 해양수산업위성계정 작성을 통한 객관적인 진단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수산업 중장기 투자 전략 등을 제시했다.

영상으로 진행된 두 번째 발표에서 클레어 졸리(Claire Jolly) OECD 해양경제 그룹장(Head of Unit, OECD STI Ocean Economy Group)는 해양경제활동을 측정하고 국가경제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경제 위성계정(ocean economy satellite account) 체계를 제안하며, “한국은 해양경제 데이터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 발표에서 박광서 KMI 경제전망연구부장은 ‘청색경제(Blue Economy)를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1) 해운물류 리더국가 실현, 2) 스마트 수산업·어촌 육성, 3) 청정·안전 바다환경 조성, 4) 글로벌 협력과 평화체제 대비를 4대 전략으로 도출했다. 추진과제로는 ▲해운항만의 종합물류 산업화 ▲국토 외곽지역 활력 제고 ▲친환경미래수산 비즈니스 육성 ▲해양생태계 복원력 강화 등을 꼽았다.

이후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김종덕 KMI원장을 좌장으로 최고의 전문가 11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방안 ▲해양과학기술 발전방안 ▲MZ 세대를 위한 혁신과제 ▲해양안보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스코트랜드 수산업의 풀필먼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목적지향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SG 경영 등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시장 지향적 유인을 제공하고, 영세중소 경영체가 디지털화 등을 추구하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한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수산업이 어려운 것은 일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인력이 없기 때문”이며, 공익형 직불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과 청년을 유치하고 기업가 정신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어업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응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국민들은 해양과학기술이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 해결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출연연구기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고 했다. 또, 해양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전망으로는 해상풍력, 해양 동식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해양생물을 의약품으로 활용하는 해양바이오테크놀로지(MBT), 해상도시와 같은 해양 공간 개발 등을 제시했다.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인 이기택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학문인 해양과학의 개방성을 높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양산성화를 예로 들면서 해양관측기술의 혁신을 위해 장기간 운용 가능한 관측기술과 센서, 그리고 전 지구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는 작년 11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합의문에 청년기후포럼의 연례 개최를 포함한 것을 언급하면서, “미래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환경문제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기후변화를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미래세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근관 서울대학교 교수는 “해양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한국 사회의 인식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하며, “해양국가로서의 한국의 자기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양 분야에서의 한국이 축적한 경험을 국제사회, 특히 개발도상국과 공유해야 한다면서 “여수해양법아카데미는 UN에서도 언급하는 성공사례”이며, 우수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이 또 하나의 과제라 했다.

김형태 삼성SDS 고문은 미국 정부의 글로벌 물류망 재편 시작에 대한 공식화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관리(SCRM) 체계 구축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하여 글로벌 공급망 가시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 후 위험 예측을 통해 유연한 의사결정 지원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재조정을 제안했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 중심항으로 지연된 선박이 부산항에서 정시성을 회복하는 등 해상물류체인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하며, “최근 물류대란 상황에서도 부산항 물동량 증가는 글로벌 해운동맹이 위기대응 회복력이 우수한 부산항을 환적 거점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항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 구축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체제 개편 ▲배후단지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항만재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해외 주요 지역에 물류센터 거점 확보를 제시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해운재건의 성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위상을 회복했으며, 해양진흥공사는 경쟁력 있는 선대확보, 선사 경영안정 등 지원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운-조선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친환경설비 지원책 강화 ▲신재생에너지 추진선 지원 등 친환경선박 도입 지원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플랫폼 구축, 국적선사 IT 고도화 등 해운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수산과 해운 분야의 회복세를 언급하며 업계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어촌 소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존, 해운 리더국가로 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근관 서울대학교 교수의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해양국가지만,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인식도가 높지는 않다. 국민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과제”라고 했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성과홍보실 성무석 전임행정원 (051-797-4384, seongms@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 해양수산 전망대회 현장사진

〈붙임〉 2022 해양수산 전망대회 현장사진





